

# 호스피스팀

-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

## 의사

### ■ 환자의 일반적 사항

- 성별/나이 : 남/45세
- 진단명 : 간암
- 입원기간 : 2005년 9월 23일 ~ 10월 26일
- 일상생활수행정도 : 50~60%

### 1. 과거력

- 2005. 7. 본원 일반외과에서 간암으로 진단.
- 2005. 8. 4. 경동맥 항암색전술 1차 시행.
- 2005. 8. 24. 경동맥 항암색전술 2차 시행.
- 2005. 9. 복부 팽만감 및 통증, 폐 전이, 전신 쇠약감, 활동수행능력저하

#### \*간기능 검사

- AST/ALT:117/74U/L (7~40/14~40),
- T-bilirubin:6.65mg/dL (0.2~1.2),
- PT:52% (70~135)

⇒ 간기능 부전으로 더 이상 항암치료가 불가능함.

### 2. 호스피스센터 입원시 문제 및 계획

#### 1) 우상복부 통증

- ▶ 소견
  - 통증의 양상: “우리하게 아프다”
  - 통증의 정도(VAS): 7/10(통증으로 수면이 힘들)
  -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2005.9.8) :
    - ① 우측 간 전체를 차지하는 간암

② 우측 간문맥과 하대 정맥의 혈전

③ 복수 양의 증가

#### ▶ 평가

- 간암의 크기 증가에 의한 내장성 통증.
- 복수의 증가로 인한 복부 팽만.

#### ▶ 치료

- Morphin 5mg/day (정주) → Morphin 15mg/day (정주)

#### 2) 복수

##### ▶ 소견

- 복부 팽만감 호소
- 복수증상 정도: 4/4
- 혈중 알부민: 2.3mg/dL (3.8~5.3)

##### ▶ 평가

- 암성 복수의 증가로 인한 복부 팽만감.
- 저알부민혈증으로 인한 복수 형성.

##### ▶ 치료

- 복수 배액관 삽입 및 배액
- 20% Albumin 100ml (정주)
- Lasix 20mg (정주)

#### 3) 호흡곤란

##### ▶ 소견

- 호흡곤란 증상 정도: 2/4
-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2005.9.8) :
  - ① 양측 폐의 다발성 혈행성 전이

② 양측 폐 하엽의 혈전 색전증

▶ 평가

- 양측 폐의 다발성 전이 및 혈전 색전증에 의한 중등도의 호흡곤란

▶ 치료

- Morphin 5mg/day (정주) → Morphin 15mg/day (정주)

▶ 치료 : Oxycontin 40mg #2 (경구) 지속 투여

#3 호흡곤란

▶ 증상 : 호흡곤란 증상 정도: 0/4

▶ 평가 :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산책이 가능함.

▶ 치료 : Valium 6mg #3 (경구) 지속 투여

3) 재원 20병일

#2 복수

▶ 증상

- 복부 팽만감 호소
- 하루 복수 배액량:

1200mL/day → 350mL/day

▶ 평가 : 복수 배액관이 막혀서 배액이 어려움.

▶ 치료 : 배액관의 재삽입

4) 재원 31병일

#4 간성 혼수

▶ 증상

- 전신 쇠약감의 진행
- 혼돈 및 의식저하
- 퍼덕이기 진전 반응: 양성

▶ 평가 : 간성 혼수에 의한 섬망 및 의식저하.

▶ 치료 : Lactulose 30mL (경구)

5) 재원 33병일

- 의식 저하의 진행, 사망

### 3. 경과

1) 재원 3병일

#1 우상복부 통증

▶ 증상 : 통증 정도(VAS): 2/10

▶ 평가

- 우상복부 통증이 호전되어 수면이 가능함.
- 식사 및 약물의 경구 투여 가능함.

▶ 치료

- Morphin 15mg/day (정주) → Oxycontin 40mg #2 (경구)

#3 호흡곤란

▶ 증상 : 호흡곤란 증상 정도: 1/4

▶ 평가

- 경한 호흡곤란이 있으나 화장실 다니기 정도의 보행 가능함.

▶ 치료 : Valium 6mg #3 (경구)

2) 재원 10병일

#1 우상복부 통증

▶ 증상 : 통증 정도(VAS): 0/10

▶ 평가

- 복부 통증의 호전으로 충분한 수면이 가능하며, 식욕 증가함.

간호사

간호진단 1

: 약제 사용에 대한 지식부족

① 주관적 자료

“그냥도 잠이 올 것 같아요.”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지 않나  
 요?”  
 “2주 동안 많이 참았는데…”  
 “수면제는 습관이 될까 봐 그냥 있을래요.”

② 객관적 자료

- 복부팽만과 통증, 호흡곤란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와 돌발성 통증을 위해 정맥을  
 통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음.  
 - 수면 장애와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진정 수면  
 제를 필요시 사용할 수 있음.  
 - 통증과 증상을 참는 경향 있으며, 약제 사용을  
 꺼려함.

③ 간호계획 및 중재

- 약물의 습관적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의존성  
 과 중독에 대한 것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물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여 효  
 과적인 증상 조절을 한다.  
 - 약물 투여 후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다.

④ 평가

- 환자가 통증과 증상이 있을 때, 완화제(마약성  
 진통제, 진정 수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  
 - 효과적인 증상 조절이 가능하여 편안함을 표  
 현할 수 있었다.

간호진단 2

: 복수와 관련된 불편감

① 주관적 자료

“배가 불러요. 복수를 빼야겠어요.”  
 “답답해요.”  
 “배가 불러서 숨이 차요.”

② 객관적 자료

- 간압  
 - 폐 전이  
 - 극도의 복부 팽만  
 - 복수 배액관 삽입 상태

③ 간호계획 및 중재

- 불편감의 원인을 파악한다.  
 - 복수 배액관 관리, 불편감 완화를 위한 진통제  
 사용 등과 같은 최적의 증상 관리를 제공한다.  
 - 환자의 요구에 즉각 대처한다.  
 - 베개 사용, 옆으로 돌아눕기, 반좌위 등의 편  
 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돕는다.  
 - 처방된 이뇨제 투여할 때 투여 목적과 효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 소금이나 물을 제한하지 않음을 환자와 가족  
 에게 교육한다.  
 - 복수의 원인을 설명하고 완화적인 치료 과정  
 과 지속적인 배액 필요성을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한다.

④ 평가

- 환자는 복부 불편감 완화 방법을 이해하고 불  
 편함을 표현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 가족은 복수의 원인과 관리에 대해 이해하였다.

간호진단 3

: 환경 및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불안

① 주관적 자료

“집에 가도 되는 건가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지? 요즘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 가?”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기운도 없고 이상해요.”

② 객관적 자료

- 깊은 수면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는 모습임.
- 간병하는 딸에게 질문 자주함.
- 같은 병실에서 임종한 환자에 대해 알고 있음.
- 증상 조절되어 의료진이 퇴원 권유함.
- 환자가 폐암 말기와 폐전이 사실을 모르며, 가족이 알려길 원하지 않음.

③ 간호계획 및 중재

-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지지한다.

-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한다.
- 환자가 알고자 하는 상태에 대해 다른 팀원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설명을 한다.
- 가족과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한다.
- 과도한 불안감을 보일 때는 처방된 진정 수면제를 투여한 후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다.
- 환자의 종교를 존중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불안감 완화를 돕는다.
- 자원 봉사자님과 연계하여 지지한다.
-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이야기한다.

④ 평가

-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을 통해 불안감이 감소하였다.
- 가족과 함께 한 생활을 통해 가족과 화해하고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에 대해 감사한다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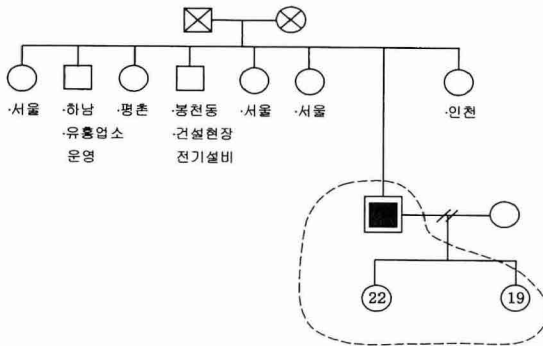


## 사회사업가

### 1. 일반적 사항

- 성별/연령 : 남/45
- 학력 : 고중퇴
- 직업 : 무 (前설비업 종사)
- 종교 : 개신교
- 결혼상태 : 이혼(슬하2녀)
- 주거형태 : 임대아파트
-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05.7.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제상태 : 下
- 사회보험 : 암보험 有
- 장례준비 : 不
- 질환 인지 및 태도 : 말기암에 대한 인지는 있으나 전이여부 모르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

### 2. 가족배경



#### ① 환자

- 부모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중퇴. 군입대함.
- 제대후 막노동, 슈퍼일, 분식집 운영 등으로 근근히 생계유지함.

- 경제적 어려움 지속되자 부인이 가출하였고 연락두절되어 이혼함.
- 1년 전부터 교우와 함께 열쇠/전기 설비일 함.
- 성실함, 내성적

#### ② 환자의 장녀

- 전문대졸
- 중국어학습지교사 하다가 간병위해 그만둬.
- 보통키, 마른체형, 내성적, 무뚝뚝함.
- 환자 대할 때 조심스러워함.

#### ③ 환자의 차녀

- 상업고 3학년
- 취업준비중
- 환자에게 언니보다 친근하게 대하여 간병 돕고 있음.
- 보통키, 마른체형, 활동적, 밝은편임.
- 환자 대할 때 조심스러워함.

### 3. 문제사정 및 개입

- 1) 환자에 대한 가족의 대처 어려움, 양가감정 -> 딸과 개별상담 실시
- 2) 가족의 지지적 관계 강화 필요 -> 음악요법 (정서적 지지, 가족의 표현유도), 가족의 방문 및 지지적 태도 격려, 소풍 및 사진제공
- 3) 장례준비 측면에서 정보 부재, 준비 미비 -> 장례준비 위해 가족상담 실시, 정보제공
- 4) 경제적 측면에서 진료비 부담의 어려움 -> 호스피스후원회 협의

### 4. 결과 및 평가

간담인 45세 남환과 그 가족에 대해 심리사회적

개입을 하였고, 환자와 가족, 딸들과 환자 형제들 간의 지지적 관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데 환자가 표현을 거의 안 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에 대한 개입이 미흡하였다. 또한 환자의 형제들은 바쁜 생활로 자주 방문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 보이는 등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는 자녀들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친밀해질 수 있었고, 환자의 임종 시 자녀들이 많이 슬퍼했지만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본다. 환자의 형제들도 저와 면담 시 부족한 형편에서도 추후 환자의 자녀들에게 관심 보이고 돕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난 12월, 환자 임종 후 두 달 된 즈음에 병동으로 편지가 왔다.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나는데 왜 그

때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고마움도 모르고 좀더 잘하지 못했는지 자신한테 화가 난다는 둘째 딸의 편지였다. 가슴 치도록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다 지난 얘기일 뿐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빠 보면 그토록 어려웠던 말-너무 사랑한다는 그 말을 꼭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그래도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 편지를 읽으며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시간이 삶에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도 되었다. 딸들이 앞으로 새롭고 건강한 삶으로 적응해서 잘 지내도록 지속적으로 편지발송, 전화방문 등 사별가족 관리할 예정이다.



## 아버지 생각

-하종오-

저를 낳은 고향에서 늙으시는 아버지  
저도 타향에서 자식 거느린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것 품에 안고 봄햇살 속에 서면  
자식 가슴에 맞대어야 제 가슴이 맑아지고  
자식 속에 스며들어야 제 속이 깨끗해지니  
어디서나 사람들이 넉넉하게 보이고  
아버지 늙으신 뜻도 알겠습니다.  
늙으셨건만  
제게 늘 어린 마음이셨던 아버지  
저는 커다란 산을 뛰어넘으면서도  
시든 풀꽃 앞에서는 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쪽 하늘 더듬으며 제가 늙어갈 적엔  
제 자식은 다른 타향에서 아비되어  
이리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터넷 발췌]

## 사 목 자

### 1. 종교적 배경

환자는 진단받은 후, 본원으로 오시기 1년전 즈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 하면서 교회 교우와 전기 설비일을 하였다. 질병에 대해서는 확실한 상태 알지 못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었다.

### 2. 영적 문제

#### 1) 병인식에 대한 수용부족

환자는 병인식은 있으나 자신의 전이 상태 모르고 회복, 기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상태는 부정적이고 주위에 우는 모습 보이면 싫어하고 우울해 한다.

#### 2) 죽음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

같은 병실 환자가 임종방에 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는 임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보이면 우울한 정서를 보였으며 어느 날은 침대에 눕고 싶지 않다며 다리 힘도 올리고 변도 보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며 밖으로 돌아다녔다. 때론 숨이 차서 힘들어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며 운동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 3) 죽음에 임박한 영적 갈망

환자의 영적인 상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와 신앙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른 보호자가 병실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자가 눈치를 살핀다.

→ 환자가 죽음에 대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영적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다. 환자는 영적인 상태에도 아직 많은 신앙 체험이 없으므로 병원 생활

중에 일상을 통해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병에 대해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영적 중재

#### 1) 초기단계

- 목표 : 신뢰관계 구축

자주 방문하며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환자의 관심사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울한 기분일 때 함께 있어주고 산책 동행하고 침묵 중 기도하며 신뢰관계 구축하고,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자와 가족에 대해 이해하였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순종적이며 친근하게 대하는 환자가 하늘정원 산책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약간 흥분된 어조로 “수녀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뭔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한 초조한 모습도 보였다. 그 후에도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혹은 “미안해요”등 자기 감정에 대해 표현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격려하였다.

#### 2) 중기단계

- 목표 : 삶의 질 향상, 영적 성장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 호스피스로 온 것에 대하여 우울해 하였으나 호스피스 팀원들의 격려와 친절로 점점 편안해 했다. 오히려 일반병실에 계실 때보다 밝아지는 환자를 보고 신기하다고까지 하며 기뻐하였고 개신교 신자인 그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줄 때 환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듣기도 하고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환자에게 다니던 교회의 교우들과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교회에 함께 다니는 분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기도 해주신다며 괜찮다고 하셨다.

### 3) 마무리단계

- 목표 : 임종준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하느님을 만나 기뻐할 곳이 생긴 것이 내게는 큰 다행이에요.”라며 기뻐하셨다. 병실에 들어가면 자주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신앙에 의지하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상태가 호전되어서 두 딸과 함께 외출을 다녀오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귀원하였다. 외출 후 다음날 환자는 손을 잡고 너무 좋았었다며 웃어 보였고, 병원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 하였다.

### 4) 마지막 작별인사

환자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봉사자님들께 임종 전 기도와 두 딸 곁에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하고 찬송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퇴근하기 전에 하루종일 혼수상태였던 환자의 귀에 대고 말했다. “이○○님, 이제 이○○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세요. 지금까지 수고 하셨습니다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일 다~ 내려놓으시고 훨훨 날아가세요. 이제 이○○님만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 만나세요.” 그 후 오후 8시40분에 하늘 나라로 가셨다.

### 4. 평가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환자는 여러 단계를 겪으면서 본인으로써도 최선을 다했고 호스피스병동 모든 식구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한 인간으로써 삶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았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들을 호스피스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롭고 신앙 안에서 의미 있는 마지막 여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에 그 의의를 두고 싶다. 또한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할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는 지금 나에게도 살아있는 말이 되며 또한 위로의 말이 되고 있다. 이 말이 고인에게도 세상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의연하게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고인의 형제들은 동생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며 동생이 평생 받을 대접을 다 받았다고 하였고 호스피스에 있는 동안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었노라고 했다.

임종 후 두달이 지나 호스피스 병동에 작은 딸에게 편지를 받고 모두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별가족 지지를 하며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고인에게 지금도 자랑스런 딸이 되리라 믿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





## 자원봉사자

## 1. 만남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던 그날, 병실에 들어서니 방금 이실한 환자는 잔뜩 부른 배에 숨이 차 괴로워하고 있었고 환자의 누님과 애똥 딸애가 겁먹은 표정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봉사자라고 소개하며 이곳에 오면 모두 한식구가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며시 환자의 가슴을 쓸어드리며 마음이 안정되도록 기도를 해드렸고 발마사지를 권하자 응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시작하자 쭉스러워 하셨지만 흡족하신 듯 고마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분과의 33일간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숨이 차기는 하셨지만 기분이 좋아지셨고, 개신교 신자인 환자를 위해 봉사자들은 찬송가와 기도를 해드리고 발마사지와 목욕도 해드리며 사랑을 쏟았습니다. 누나와 큰딸은 호스피스에 내러올 때는 임종하러 간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무서웠는데 오히려 일반병실에 계실 때보다 밝아지는 환자를 보며 참 신기하다고까지하며 기뻐했고, 봉사자를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던 모습이 다소 호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봉사자들과 가까워진 환자는 마음을 열었고 방문하면 반가워하며 말씀도 잘 나누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으로 오신 후 통증, 부종, 기력 모두 좋아져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표현하시며 강한 삶의 희망에 차 계셨고, 이실 오던 날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산책과 특히 하늘정원 산책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하늘 정원에 가서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가곡과 가요도 함께 하시며 즐거워하였고 간

호사님들의 친절과 봉사자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에 감동하셨다고 문병 오는 분들에게 말씀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끔 환자의 누님과 형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아빠가 발병 후 직장을 그만 둔 큰 딸과 고3인 작은 딸이 와서 아빠를 돌봐드리는데 얼마나 간병을 잘하는지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환자는 딸에게 못할 일을 시킨다고 미안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 흐뭇해 하셨습니다.

## 2. 삶...

창밖에 촉촉이 가을비가 내리던 날, 병실에 가니 환자는 혼자 계셨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말없이 곁에 앉아 있으니, 환자가 말문을 열며 자신은 비를 좋아한다고... 비 중에도 낙엽이 다 떨어진 늦가을이나 초겨울 나뭇들 사이로 약간의 바람과 함께 내리는 찬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을씨년스럽지 않겠냐고 하자 자신은 외롭게 살아서 그런지 너무 화려하거나 화창한 봄날 같은 것은 좋아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여러 남매가 있었지만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이나 누나의 출가 후 어린 자신과 여동생 둘이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노라며 고생도 참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결혼을 한 후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단 한번도 의지해본 적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며 살았고, 두 딸도 잘 키우려고 했는데..”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더 나은 50대를 위해 설비일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시며 또 목이 메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시듯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 기댈 곳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그 은혜로 이곳에 와서 불쌍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것 아니겠냐며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은 우울한 성격은 아니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사셨기에 두 딸이 잘자란 것 같다고 격려와 위로를 해드리자,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서 둘이 의지하며 서로 잘 하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큰딸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고3인 작은 딸도 빠른 취업을 위해 간호보조 학원에 등록했다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이 분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소외되고 외로웠는지 그 서러움이 전해져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환자는 의욕을 보이며 다리에 힘도 올리고 변도 쉽게 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며 하늘정원 산책을 원하셨습니다. 다리에 부종을 걱정하는 딸과 봉사자에게 다리를 번쩍 들어보이며 “이렇게 가벼워졌어요”하며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곳곳한 모습을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 3. 마지막 가족소풍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퇴원 이야기가 나왔고 작은 딸은 아빠가 아프기 전에 같이 찍은 단 하나의 사진이라며 보여주면서 퇴원하면 아빠와 사진도 많이 찍겠다고 했습니다. 목욕도 하시고 집에 다녀올 준비를 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다소 나빠져 집에 못가시게 되자 두 딸은 집에 가도 걱정이었지만 못가게 되자 더 불안해했습니다.

호스피스센터에서는 환자와 두 딸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작은 소풍을 계획하였고, 저는 환자와

두딸의 추억만들기 외출에 동행했습니다.

소풍날, 환자도 환자러니와 두 딸은 한껏 멋을 내고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화장이 지워질까 속눈썹이 떨어질까 연신 거울을 보곤 했습니다. 역시 애들은 애들이었습니다.

병동 식구들 모두의 염려와 부러움을 뒤로하고 과천 현대 미술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걱정스러웠던 환자는 처음으로 그렇게 맑고 환한 얼굴로 즐거워 하셨습니다. 두 딸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빠와의 소풍에 임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에 눈부서하며 사진 찍었고, 용기가 나신 환자는 휠체어를 마다하고 땅을 밟아 보고 싶다며 두 딸의 부축을 받아 한발 한발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밟아본 마지막 땅이 되었습니다.

1시간 30분 짧은 소풍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한에 찬 얼굴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버렸어요.”라고 하시며 애들에게 “우리 다음에 또 오자”고 했고 잊지 못할 소풍이라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고 마지막 가족소풍이 되었습니다.

큰 딸은 소풍에서 아빠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빠의 상태를 피부로 느꼈는지 소풍 다녀온 후 화장실에서 혼자 자주 울었습니다. 곳곳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아빠를 생각해서 너희들도 용기 잃지 말라며 달래 주었습니다.

### 4. 딸의 상처

머칠 후... 큰딸은 근심스런 얼굴에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생활비, 입원비 문제로 아빠가 더 우울해지고 증세도 나빠지고 있다며 울먹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입원비 내기에 힘들다고 했고, 고모가 가끔 식사를 준비해 오기도 하지만 호스피스센터에서 제공되는 보호자를 위한 식사로 해결할 때는 저녁

에 올 동생을 위해 밥과 국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동생 교통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팀모임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차츰 나빠지는 가운데 작은 딸이 간호보조사로 취직이 되었고 첫 출근을 했다며 환자는 모처럼 환한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잘 되었다고 같이 기뻐하며 축하 해주었습니다. 문병 온 가족 모두가 기뻐하셨고, 서로 살기 어려워 왕래 없었던 형제들이 환자의 발병으로 인해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큰딸에게 아빠에 대한 속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단풍을 주어다 카드를 만들고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큰딸과 함께 수녀원 앞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고운 단풍잎과 모과나무 밑에 떨어진 작은 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놀라운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후 그렇게 자상하던 아빠는 차츰 술주정뱅이가 되어갔고, 잘해주시던 아빠가 이유 없이 딸 둘을 때리기 시작했고 너무 매를 많이 맞아 동생은 가출을 하려고도 했다며 “내가 맞는 것보다 동생이 맞을 때 더 가슴이 아팠어요.”하며 새삼 그때가 생각났는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왜 우리는 남들 처럼 살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씩씩하고 명랑하게 지내는데 집에 오면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말병하셨고 처음엔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어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밋고 무섭던 아빠가 저렇게 약해져버렸어요.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효성이 지극하고 다정해 보인 부녀였는데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망연해졌지만 두 손을 꼭 잡아 주며 “엄마 없이 너희들을 키우며 아빠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셨겠니.. 너희들이 잘못될까봐 엄하게 키우려는 아빠의 사랑이 그렇게 매질로 이어졌을거야.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해드리렴.”하고 다독이며 위로해주었습니다.

가슴속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쏟아내는 이 아이는 어찌면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병동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지는 못 쓰겠다는 딸애와 주어진 모과로 세식구 얼굴을 만들고 단풍과 국화꽃으로 작은 화병을 만들어 환자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순간 부녀사이에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빌었습니다.

## 5. 마지막 시간

그 날 봉사를 끝내고 나오기 전 병실에 들렀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듯 딸아이 선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참 착한 딸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잘 해준 것이 없고 잘못된 것만 많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렇지요..”라고 하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나요?”하고 묻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딸애와 나는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하신 것을 애들에게 사과하시고 미안했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씀하셔야 해요..”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 나오려는데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과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왓지 마음이 쓰였고 휴게실에서 딸을 만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알려주고 돌아왔는데 바로 다음날 이른 아침, 환자가 임마누엘 방으로 옮겨졌고 큰 딸이 혼자 무서워하고 있다고 간호사님의 전화 연락에 이어 큰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무서워요. 아빠가...” 하며 울먹였습니다. 곧 가겠다고 안심시키며 급히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문을 닫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울며 떨고 있는 딸에게 그동안 잘 돌보아드렸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격려해주었고, 어제 아빠가 너희들을 때린 것이 가장 미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자 딸애는 “정말이요? 우리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하며 놀란 눈을 떠보였습니다. 환자는 말씀을 못하셨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딸애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빨리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요!” 하며 오열했습니다. 부녀의 가슴에 남은 응어리가 다 녹아나는 듯 했습니다. 뒤늦게 연락받고 온 작은 딸은 “빨리 돈벌어 아빠 맛있는 것 사드리고 병원비도 내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잖아요!”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받은 친척들이 오셨고 곧 임종하실 것 같았던 환자는 종일 숨을 거두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빠 죽으면 안된다고 울고 울던 두 딸도 “아빠, 너무 힘드셔서 안되겠어요. 우리 걱정말고 하늘나라로 가세요.” 하며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봉사자들의 임종전 기도와 찬송가가 몇차례 계속되는 동안 오후 8시 40분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억울하고 아쉬운 45세 고단한 삶을 거두셨습니다.

## 6. 그 후...

가난한 가족들은 비굴할 정도로 통사정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무료 장례차를 제공받아 강남 시립 병원에 안치하였고 고인의 친구로부터 수의를 제공받아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봉사자들은 입관예절과 개신교식 출판예배에 함께 하였고 벽제 화장장과 용미리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함께 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두 아이는 슬픈 중에도 의연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가족들은 경제적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지만 주위의 도움과 조의금으로 잘 해결되어 아들 큰아버지는 안도하시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릴 적 같이 살았던 막내 여동생과 큰누님이 유독 많이 울었는데 큰누님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밥이라도 더 해다주고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더 해다 먹일걸 철없는 애들이 의지할까봐..”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형제들은 동생이 호스피스병동에 와서 평생 받을 대접을 다 받고 갔고, 자신들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고 놀렀다며 이제 세상을 다시 살겠다고 몇 번이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후 전화를 했더니 두 딸은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땐 혼자 자도 무섭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 불도 끄지 못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빠가 지켜주실 것이니 무서워 말고 곳곳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겨울 찬비가 내리면 그 분 생각이 납니다. 그 곳에도 찬 비가 내리는지.